

‘新경제’ 청사진·중점과제 제시

新經濟 100일 7대 중점과제

- ▲ 景氣 활성화 ▲ 中企 경쟁력 강화 ▲ 科技投資 확대 ▲ 行政 規制 조기 완화
- ▲ 農漁村 구조개선사업 改編 ▲ 生必品 價안정
- ▲ 意識改革 운동 추진

金泳三大통령은 新경제특별담화를 발표, ‘新경제’를 건설하는데 5년의 임기를 바칠 것이라고 밝히고 新경제 5개년계획의 청사진과 新경제 1백일계획의 7대 重點課題를 밝혔다. 아울러 기업·노동자·농어민에게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1년간의 제품가격·서비스요금동결, 기술개발 및 업종전문화, 임금안정등의 공통분담을 촉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발전을 중단해 세계 경제전쟁·기술전쟁에서 낙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다른 新경제를 제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경제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규제를

대폭 줄여 자유로이 활동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며 함께 일하고 보람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전제 “재정과 금융, 행정개혁이 먼저 이뤄지고 의식개혁과 공직자의 자기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金融實名制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新경제건설을 위해 자율성·일관성·투명성원칙하에 임기중 新경제 5개년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이 계획의 성패가 금년, 특히 1백일동안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신경제 1백일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중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연도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강은 ▲’93년 국제경쟁력회복과 경기활성화를 통한 신경제 기틀 마련,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추진 ▲’94 경제활

동관련 제도개혁 마무리 ▲’95년 본격적인 국제화 추진, 본격발전 궤도 진입 ▲’96년 주택·환경·교통·노인·복지등 국민생활질의 향상 ▲’97년 신경제 목표달성의 마무리등으로 돼 있다.

또 상반기중 실시될 신경제 1백일 계획의 7대 중점과제는 1) 景氣 활성화, (제조업의 수출·투자중심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금리인하, 통화신축 관리, 공공투자를 조기집행) 2) 中企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강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투입, 중소기업지원제도 정비 및 애로타개) 3) 科學技術투자 확대, (산업현장의 기술개발 확대, 기술개발 장애요인 제거 및 효율성제고) 4) 行政規制 조기완화, (법개정이 필요치 않는 사항 즉시 시행, 필요시 국회에서 처리, 관행에 의한 규제도 철폐) 5) 農漁村 구조개선사업 개편, (농어민이 혜택) 6) 生必品 가격안정, (정부가 특별관리) 7) 意識改革 운동 추진, (공직자의 관료주의·권위주의 타파)등이다.

金대통령은 “이제 新경제의 출발선에 섰다”면서 경제난 극복에 기업·개인 서버스업자는 1

년간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올리지 말고 고용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만들고 자금결제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경제외적비용을 기술개발과 근로

자 복지향상 및 투자확대에 쓰는 한편 주력업종으로 전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들도 경제를 살려야 내 몫이 있다면서 임금안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품의 기능 및 진열·판매방법등을 차별화 전문점과 특성화점(특히 오디오)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유통서비스의 질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통경로 참여자들이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家電 유통시장開放 대응책긴요

앞으로의 유통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외국가전업체들이 국내유통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로 예정된 제3차 유통시장개방 확대조치로 체인스토어형태의 전문점 및 양관점의 진출이 가능해지는 것을 비롯 이를 계기로 美國과 日本등 선진국들은 매장수 및 매장면적 제한의 조기철폐,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축소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내유통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시장의 경우는 유통시장 개방확대로 외국제조업체의 직접적인 단독유통망 구축과 일본형 混賣店 및 양관점 등의 설립등이 추진돼 외국가전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확대되

고 판매점도 대형점은 초대형점, 소형점포는 초소형점포로 변화하는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가전업체의 전속적 대리점체제로 돼 있는 국내가전유통산업은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가전업체에게도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가전업체 및 유통업체가 앞으로의 개방확대에 대응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가전대리점들이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점포규모를 대형화하는 한편 서비스 능력 강화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유통업진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 점포의 대형화를 꾀하고 고객이 보다 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춰 제

또한 제조·영업·판매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가전회사의 구조로는 외국기업의 국내유통업 진출에 대해 적절히 대응키 힘들다고 지적, 제조업체의 영업부문을 판매회사로 독립시키거나 1백%출자의 대형직영점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업체들이 전국 10대도시에 아파터서비스망을 구축할 경우 최소 3백억~4백억원이 소요되는 등 아파터서비스 부문이 국내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는 점을 감안, 국내업체는 서비스능력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전제품에 대한 높은 특별소비세로 인해 밀수가 근절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특소세의 면제나 대폭적인 인하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國전기전자제품 需給동향

中國機械電子工業部는 최근 자국의 전기 및 전자제품의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컬러텔레비전 = 중국은 현재 57개의 정규 생산공장 외에 수많은 비정규생산공장을 갖고 있다.

이들 공장을 모두 가동할 경우 중국은 연간 총 2천만대의 텔레비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실제 생산 규모는 연간 1천만대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늘어날 수요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은 오는 95년까지 충분한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소형컴퓨터 = 중국은 현재 36개의 지정 컴퓨터 생산공장을 갖고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을 생산해 내는 기업은 4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국 전체 생산능력은 연간 약 15만대 정도이다.

중국은 공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몇몇개의 컴퓨터 생산공장을 설립, 연간 생산능력을 25만대 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 컬러텔레비전용 키네스코프

와 벌브 = 지난 90년 중국의 컬러텔레비전용 키네스코프 생산능력은 연간 7백50만대에 불과했으나 오는 95년에는 총 1천2백9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수출용 물량으로만 4백10만대가 연간 별도 생산된다.

벌브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내수용은 연산능력 5백26만대에서 1천9백8만대로 늘어날 전망이고 여기에 수출용 물량도 4백45만대가 별도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 VTR = 중국은 현재 VTR 연산능력 3백만대 돌파를 위해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과 합동으로 주요부품, 시험기기, 특수장비 등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자레이저용 마그네트론 = 중국은 현재 중국에서 내수 및 수출용으로 필요한 전자레이저용 마그네트론을 연간 2백40만대 내지 2백50만대로 파악, 이를 충당하기 위한 5개의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 분산식 통제시스템 = 중국은 오는 95년까지 자국의 유화 산업과 금속산업, 발전소 등지에 필요한 분산식 통제시스템의 갯수를 연간 150개 정도로 파악하

고 있다.

이미 중국은 지난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동안 6개 분야에 외국기술 도입을 끝마친 상태로 오는 95년 말에 이르러서는 연간 생산능력이 170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에너지, 유화, 기계, 전자 산업등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외국기술 도입을 별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수급에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 超硬度금속 = 오는 95년 중국의 超硬度금속 수요는 연간 1억캐럿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 생산능력은 연간 6천5백만 캐럿으로 공급에 크게 부족했지만 지속적인 증산능력에 힘입어 오는 95년에는 연간 1억 6천만캐럿까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서 판 매

1. 도 서 명

전기용품 안전관리 관계법령집 및 기술기준(전2권)

2. 판 매 가

회원사 - 5만원
(지방우송시 1,500원추가)

일 반 - 7만원 (")

※재고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